

■ 괴운(槐雲) 칼럼



오계(五計)와 오멸(五滅)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어느새 2021년 신축(辛丑)년이를 보내고 2022년 임인(壬寅)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들이 피곤한 한해였다.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활기를 찾고 행복하고 평안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그래서 오늘은 임인년 벽두에 인생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일찍이 송나라 서주(舒州) 회녕(懷寧) 사람으로서 자는 신중(新仲)이고, 호는 첨산거사(灤山居士)인 주의(朱翌)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다섯 가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오계론(五計論)>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생계(生計)이다.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계획이다. 즉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계획으로서 직업에 관한 계획과 준비이다.

둘째는 신계(身計)이다. 병마(病魔)와 부정(不正)으로 부터 몸을 보전하는 계획이다. 즉 내 건강을 위하여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계획이다.

셋째는 가계(家計)이다. 집안을 편안하게 꾸려가는 계획이다. 즉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와 정신적 안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했다.

넷째는 노계(老計)이다. 멋지고 보람 있게 늙는 계획이다. 즉 이것은 노후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며, 어떻게 자식과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계획이다.

다섯째는 사계(死計)이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계획이다. 즉 마지막으로 사람은 죽을 이후에 대하여 분명하고 바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섯째 사계(死計)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가지 인연과 자별하는 일이라고 얘기를하는데, 이를 오멸(五滅)이라고 한다.

오멸의 첫째는 멸재(滅財)이다. 재물과 헤어지는 일이 다. 살아서 마련한 재산에 미련을 두고서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일이 멸재(滅財)이다.

둘째, 멸원(滅怨)이다. 남과 맷은 원한을 없애는 것이

다. 살아서 겪었던 남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내야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남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에서 비롯된 원한을 끝내는 일이 멸원(滅怨)이다.

셋째, 멸재(滅債)이다. 남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다.

이란 꼭 돈을 끌어 쓴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도 빚이다. 살아있을 때 남에게 받았던 도움을 깔끔하게 갚는 일이 멸재(滅債)이다.

다섯째, 멸망(滅亡)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신념이 멸망(滅亡)이다.

한편 조선조 명종(明宗)때 홍계관(洪繼寬)이란 소문난 점쟁이가 있었다. 그가 사람이 죽는 해 죽는 달까지 맞힌 다음에 상류사회 가들이 그 문전에 줄지어 기다릴 정도였다. 상진(尚震) 정승도 이 점쟁이한테 죽는 연월을 짐쳐두고 3년 전부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사계(死計)를 세워 행했다. 당시 지식층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 않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느냐는 사계(死計) 문학과 번졌다. 이는 송(宋)나라 학자 주의의 <오계론(五計論)>의 영향을 받아 '오멸(五滅)'이라는 노후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이었다. 상진대감은 이렇게 멸망 철학을 실천하며 죽음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는다는 연월이 지나도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홍계관을 불러 맞지 않은 점괘를 두고 짜자 "죽을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오로지 남에게 알지 않고 베풀 음덕(陰德)뿐입니다."라며 생겨나는 음덕을 베풀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임금님 수리간에서 금으로 만든 밥그릇을 훔쳤다가 들긴 벌감(別罰)에게 장물을 현장에 갖다 놓게 하고 은밀히 사형을 면해준 일이 있었다. 상진대감은 그 음덕으로 15년간이나 더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음덕덕분이라기 보다는 오멸(五滅) 철학을 실천한 정신적 안정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동권문들로 오계론과 오멸론을 참고하여 보람있는 한해를 설계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달의 책

명심보감강의(明心寶鑑講義)

/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갑현 편집위원장이 "명심보감강의(明心寶鑑講義)"를 출간했다. 40여년 전 고 김성원 선생이 역재한 "신완역 원본 명심보감 강의"의 오자(誤字)와 오역(誤譯)과 결락된 조목들을 보완하여 출간한 개정증보판이다. 책은 천명편(天命篇), 정기편(正己篇), 존심편(存心篇), 치정편(治政篇), 치가편(治家篇), 언어편(言語篇), 부행편(婦行篇) 등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심보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서문에서는 "배우지 않으면 널리 알지 못하고 밝은 마음이 아니면 자기 본래의 천명(天命)을 깨닫지 못한다"고 밝힌다. 저자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공학박사로 동양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학자 동애(東崖) 권호조(權憲祖) 선생과 동계(東溪) 이진재(李震宰) 선생을 사사(師事)하고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자양성과정 및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고전국역과정을 이수하여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문무를 겸했다.

편집국장 권경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2차)

회원 여러분의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일정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준) : 010-9027-6179 총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2년 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월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 희망찬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2년 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생활속의 한방건강



긍정에너지와 건강 ②

6. '참'과 '진리'의 생활화

1) 있는 그대로의 존재(存在, Existence)를 바라보기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참이다. 어떤 것은 실제(實際, Real)로 존재하지만, 다른 것들은 가상(假想, Virtual)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것들을 있는 존재 그대로 보거나 느끼는 것도 참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인식도 참의 기본이다.

인식에는 객관적, 주관적 인식이 있다. 객관적 인식은 소위 보편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이고, 주관적 인식은 내가 바라보는 대체로 특이한 상황을 담고 있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존재의 주체와 객체의 해석이 다르게 된다.

보편적으로는 객관적 인식을 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성격유형, 적성검사, 체질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되어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있는 그대로를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참이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당사자의 관점이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존재하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심상이다. 그것은 종종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대화와 연구를 하게 만든다.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이는 참의 여러 시각에서 한가지만을 주장하게 되어 편파적으로 나아가기 쉽다.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달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존재의 다양성에 대한 나의 시각은 넓어질 것이다. 헤아리는 만큼 넓게 때로는 깊게 보게 된다.

2) 가상으로 바라보는 존재

가상은 괄호안의 한자(假想, 假像, 假象, 假相; 實體가 아닌 물상) 등으로 그 뜻이 달리표현된다.

가상(假想)은 사실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을 이룬다. 상상(想像)은 실제가 아닌 상황을 마음에서 그려보는 것으로 넓은 개념으로는 같으며, 둘 다 참이다.

요즈음 대세로 떠오르는 가상현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 : VR)은 컴퓨터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 내는 실제와 유사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말 놀랍게 금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실험 또는 직접경험을 통해 소비했던 막대한 기회비용 내지는 매몰비용 등을 축소시켜가고 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재미나 쾌락, 욕망 등을 해소 또는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가상적인 체험은 실제와의 융합을 통해 우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더 많은 효

용을 준다.

'꿈속에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사람'을 덧없이 말할 수 있을까? 꿈꾸고 있는 동안은 행복했다. 그러한 꿈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꿈이나 상상에서 나오는 소설이나 만화의 내용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또는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상적 체험에 매달리게 되면 생길 것이다. 가상적 현실에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거나 재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실제현실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현실에서는 가상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가상에서 쓰는 에너지에 익숙해져서, 자칫 현실에서 에너지 쓰는 노력이 축소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에너지가 약화될까 염려 된다. 현실에서의 존재와 가상에서의 존재를 분별하여 적절히 넘나드는 슬기로 점차 필요하다.

3) 참의 반대인 거짓

참의 반대는 거짓이다. 진짜의 반대는 가짜이다. 크게 보면 거짓이나 가짜는 같은 말이다. 어떤 것이 실제하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데 실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도 거짓이다.

거짓은 참의 영역의 반대편에서 참의 영역을 더 그려보게 만든다.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면 참을 더 강조하게 된다. 거짓으로 인하여 참의 색채가 명확해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다. 참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거짓의 영역은 좁아질 것이다.

참은 알차고 진실(眞實), 거짓은 비워있다(虛偽)이다. 참과 거짓은, 음양처럼, 때로는 서로의 영역을 확보해주는 상보관계에 있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극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

4) 참은 자라난다.

참(眞)은 존재이고, 존재는 씨앗과 같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선(善)'이 이들을 자라게 하는 온도이며 영양제이다. 상대적으로 '악'은 거짓을 키우는 도구로 작용된다.

참은 자라날 가능성을 가진 씨앗과 같은 존재이므로, 진리는 바로 참의 자라나는 속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리의 본질은 존재와 발전의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참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기틀이며, 긍정의 원칙과 원동력이 된다.

씨앗이 크지 않다고 열매가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농업이나 세상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참의 씨앗은 현재의 크기에 상관없이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참의 존재와 인식은, 예전이 되는 한, 우리 마음과 우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씨앗이 크지 않다고 열매가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농업이나 세상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참의 씨앗은 현재의 크기에 상관없이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참의 존재와 인식은, 예전이 되는 한, 우리 마음과 우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구절 중

권영섭(243) 부장



■ 이달의 시

세월

/ 권채영/부산종친회 사무국장

세상사 살다보니
세월 간다 헛되이네
차타면 산과 들이
달려가듯 보여도
강산은
꿈쩍도 않고 제자리를 지키네

빠르다 온다 간다
탓하고 나누라도
세월은 강산처럼
잡은 자리 지킬 뿐
여태껏
세월 길 쫓아 흘러온 건 우리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3만원
종보 대금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21년 10월호와 함께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843-4

안동권씨 대종회